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컨설팅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 무역인력을 기업현장에 투입, 서신작성·통관·관세환급 등 수출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중진공은 이를 위해 대기업과 종합무역상사·수출유관기관 등에서 무역경험을 쌓은 52명을 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지원대상은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다. 문의 (02)769-6955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2004. 7. 1】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종합상담사이트 개설

서울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이버상담실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분야는 10개분야로써 국제거래/계약, 세무/회계, 지적재산권, 인사/조직, 해외시장진출 국제규격인증, 생산관리, 마케팅, 창업, 경영일반 등이다. 상담은 인터넷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주소는 www.bizhelp.seoul.kr 또는 bizhelp.seoul.kr이다. 한글 주소 입력이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사이버상담' 또는 영어로 'bizhelp'을 치면 사이트 방문이 가능하다.

또 센터는 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창업, 경영일반 부분의 상담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내방 상담시간 : 월 ~ 금 10:00 ~ 17:00 상담안내 : 2657-5705 FAX : 2657-5709 E-mail : daniel@sipro.seoul.kr)

상담절차는 상담위원 선택(질의자) 후 질의(질의자), 답변(상담위원), 만족도 체크(질의자) 순으로 이루어 지며, 답변기일은 질의 후 최장 2일 이내로 하고 있다.

창업 및 경영일반은 서울산업지원센터(강서구 등촌동 647-26, 전화 02-2657-5717) 중소기업종합지원실에서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 : 서울산업진흥재단, 2004. 7. 1】

생명공학 육성 6393억 예산 지원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생명공학육성에 6393억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2004년 생명공학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예산규모는 지난해 5천3백2억원에 비해 20.6%가 증가한 것으로, 부문별로는 연구개발 부문에 4천6백39억원이 투입돼 전년대비 6.4% 늘어났으며 공공 인프라 부문은 전년보다 85.8% 늘어난 1천7백54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마린바이오 21, 보건복지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 농림부의 수의과학 기술개발, 과기부의 파스퇴르연구소 국내 유치 사업등이다.

7개 부처별 예산규모를 보면 과기부가 2천3백65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인적자원부 2백64억원, 농림부 9백54억원, 산업자원부 7백94억원, 보건복지부 1천6백97억원, 환경부2백48억원, 해양수산부 71억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생명공학 육성방향으로 관련분야의 정책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생명공학의 전주기적 관리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료 : 과학기술부, 2004. 6. 28】

저금리 총액한도대출 지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유망중소기업에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 자금지원제도' 신청을 받는다.

이 대출지원의 대상기업은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 중소제조업체로 추천 대상 조건을 2가지 이상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추천대상 조건은 산업기반기술개발품목 또는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 대상품목,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의한 개발품목,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한 기술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첨단기술,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규격)인증을 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1%이상인 기업, 수출비중이 매출액 대비 20% 이상인 기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대출취급기준 14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시중 대출보다 1~3% 낮게 적용된다. 단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할인 부천과 김포 소재 업체는 대출조건이 다르며 지원금액 한도가 10억원이다.

문의 : 경기중기청 경영지원과(031-201-6931~6)

【자료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04. 6. 14】

중소기업기술력 담보 인정, 기술보증 200억 지원

특히, 실용신안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해 200억원의 신기술사업화자금이 지원된다. 또 이같은 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매출이나 재무구조가 열악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술로 담보력을 인정하는 기술 보증이 시행된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일 200억원의 신기술사업화 자금은 업체당 최고 15억원 한도내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4.93%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최근 3년 이내에 도내 산·학·관 협력 기술개발을 완료했거나 기술인증(NT), 우수기계인증(EM) 등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를 등록받은 기술중 시제품개발을 완료한 기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수기술지정을 받은 기업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에서도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외자유치기업이나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한도의 최대 2배(30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신보는 이 자금이나 시설투자자금(1천200억원)을 융자받은 기업 가운데 기술성·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매출실적과 재무구조가 열악해 보증지원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성장잠재력'을 평가, 보증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 : 경기신용보증재단, 2004. 6. 9】

자금난 중소기업 특별지원

우리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정상기업들을 돕기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의 납기를 일부 유예해주는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지원책에 따르면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기업은 분할상환금의 20% 이상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1년 이내에 2회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또 대출한도 재산정으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한도축소 금액의 10% 이상만 갚으면 기간연장과 재약정을 할 수 있게된다.

일부 금액조차도 갚지 못하는 기업은 3개월 이내 단위로 기간연장과 재약정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분할상환대출과 한도축소대출의 경우 미상환 금액의 1~2%를 상환유예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또 일부상환을 못한 채 기간연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원금의 0.3%를 같은 명목으로 징수기로 했다.

【자료 : 우리은행, 2004. 6. 7】